

# “타이거즈 팀워크 이어가자”

김용용·홍세완 등 30여명 참여 레전드 모임 열려...김기태 감독 “적극 지원”

“내가 마무리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선발 아니었어?”

뒤늦게 등장한 ‘노히트 노런 투수’ 방수원을 향한 김용용 감독의 외침에 행사장은 웃음 바다가 됐다.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한 방수원은 스승을 꼭 끌어안고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다.

타이거즈의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2015 타이거즈 레전드 모임이 개최됐다. 모임을 이끄는 이순철 회장을 필두로 타이거즈의 중심 김용용 감독, ‘아기 호랑이’에서 호랑이 조련사가 된 홍세완까지 30명에 가까운 이들이 발길을 했다. 해태가 아닌 KIA 이름으로 타이거즈 일원이 된 투수 강철민도 막내로 자리를 했다. 타이거즈 선수로는 뛰지 못했지만 V10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 김기태 감독은 찬조금을 보냈다. 김 감독은 일정상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타이거즈 모임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타이거즈 레전드라는 이름에 걸맞은 라인업이 구성됐다. 타이거즈 좌완 첫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의 신동수와 ‘가을 까치’로 명성을 날린 김정수, 화려했던 우타자들 속에서 이름을 남긴 박철우·박재필 타이거즈 대표 좌타자도 등장했다. ‘김씨 라인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원년멤버 김준환, 타이거즈 유일의 신인왕 이순철, 우승을 받아낸 포수 정희열, 1999년 역대 최연소 1000안타를 달성한 홍현우, 최초의 100타점 유격수 홍세완 등, ‘마당쇠’로 활약을 했던 송유석은 모임에서도 여전히 ‘마당쇠’다.

송유석은 “2006년부터 총무를 하고 있다.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데 후배들이 현장에서 뛰느라 마땅한 사람이 없다. 빨리 후배가 등장하면 좋겠다(웃음). 올 시즌 해설위원을 했는데 마음이 편했다. 원래 있던 곳에 돌아간 느낌이고 후배들을 스스로없이 만나고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타이거즈 왕조의 역사를 함께 한 최은

범 단장, 임재준 주치의, 김용식 트레이너 등도 옛 선수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과거로 돌아간 이들은 이런저런 추억을 꺼내어 놓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분명 그때 LG와 계약을 해냈을 거야. 보자고 했는데 안 나타나더라”라는 김용용 감독의 타박에 “오해세요. 저 그때 자리에 나왔어요”라며 홍현우는 스승 앞에서 귀여운 막내가 돼 이야기 꽃을 피웠다.

수줍은 고백도 있었다.

홍세완은 “신인 때 전지훈련을 갔다가 밤 늦게 김용용 감독님을 마주친 적이 있다. 사실 통화를 하느라 늦었는데 마침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혼자 훈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감독님 이동 시간에 맞춰 방망이를 들고나가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한 번도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웃음을 터트렸다.



김용용 전 감독을 비롯한 타이거즈 출신 야구인들이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한 음식점에서 ‘2015 타이거즈 레전드 모임’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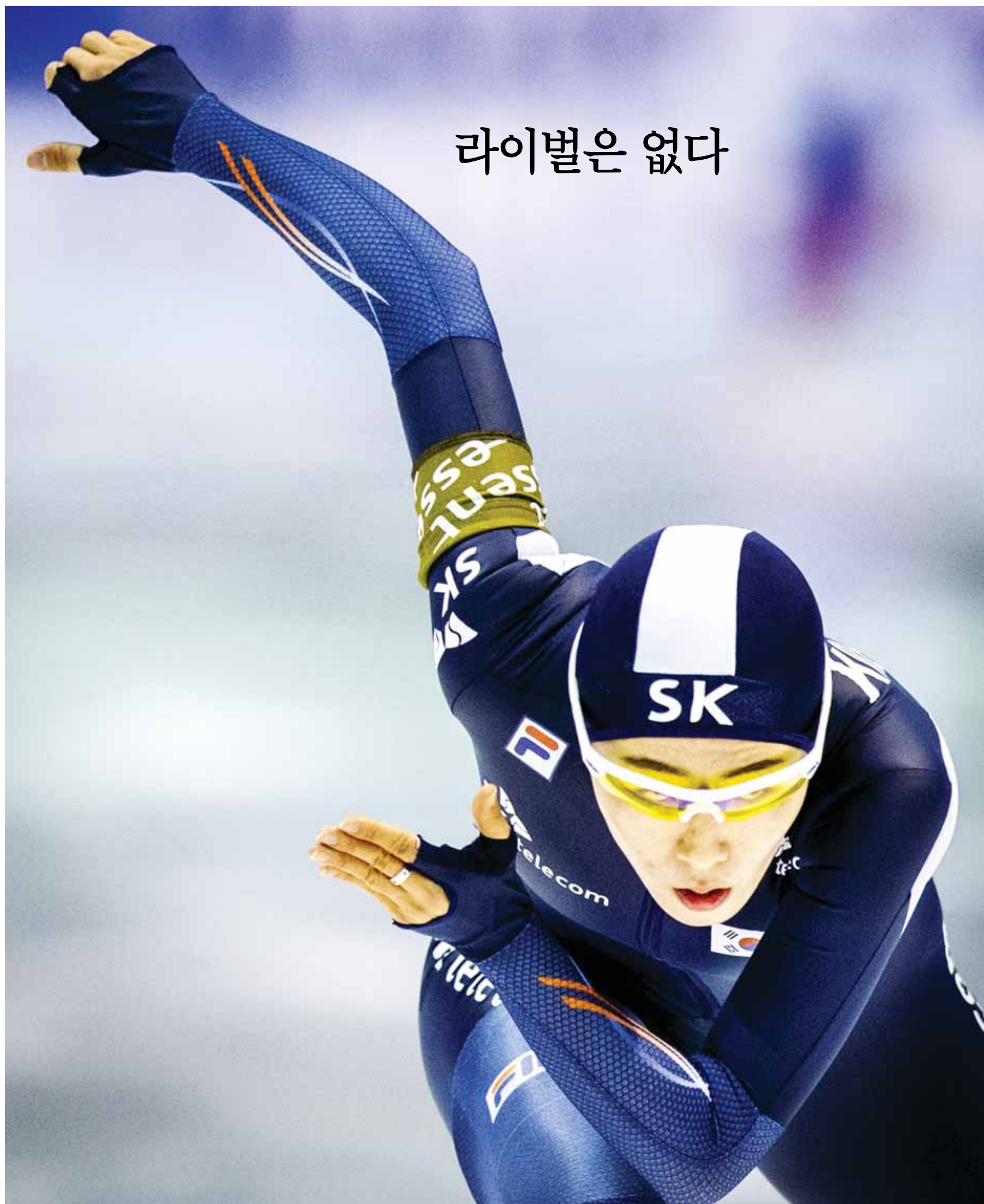
10회 우승에 빛나는 타이거즈, 한국 프로야구에서 유일하게 모임을 가지는 팀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이순철 회장은 “더 많은 후배가 선배들과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선배님들도 더 많이 오시도록 하겠다. 더불어 살았던, 팀워크라는 좋은 전통이 계승됐으면 한다. 김용용 감독님과 어려운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하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모임을

계속하고 타이거즈 야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 해태, KIA가 아니라 타이거즈라는 이름으로 선후배가 함께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라이벌은 없다

‘빙속 여제’ 이상화가 지난 11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에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1차 레이스에서 역주를 펼치고 있다.

## 이상화, 빙속 월드컵 시리즈 500m 3연속 금

### ‘급부상’ 장흥 메달 실패

이상화(26·서울일본)가 ‘라이벌’로 급부상한 장흥(27·중국)을 따돌리고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시리즈 3차례 연속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이상화는 지난 11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1차 레이스에서 37초59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브라티니 보위(미국·37초86)를 0.27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 7일 끝난 월드컵 3차 대회에서 500m 1, 2차 레이스를 모두 우승으로 장식했던 이상화는 이날 금메달을 추가하며 월드컵 시리즈에서 3차례 연속 ‘금빛 행진’을 이어 갔다. 이상화가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따낸 금메달은 4개로 늘었다.

3차 대회에 결장한 장흥은 38.01초로 4위로 밀리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헤더 리처드슨(미국·37초93)이 3위를 차지

했다. 10조에서 리처드슨과 함께 레이스를 펼친 이상화는 인코스에서 출발해 초반 100m를 10초39로 통과하며 20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르게 치고 나섰다. 이상화는 나머지 400m를 27초20으로 주파하며 37초59를 기록, 1위를 차지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다만 이날 이상화의 기록은 이번 시즌 펼친 7차례 레이스에서 가장 느린 기록이다.

함께 경기를 치른 김민선(서문여고·38초83)과 김현영(한국체대·39초01)은 각각 17위와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승훈(대한항공)-주형준(동두천시청)-김철민(강원도청)이 호흡을 맞춰 출전한 남자 팀추월에서는 3분46초34를 기록, 3위에 오른 러시아(3분45초24)에 0.1초차로 뒤지면서 아쉽게 동메달을 놓쳤다. 또 남자 500m 디비전A 1차 레이스에 출격하던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모태범(대한항공)은 35초03으로 9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 日 피겨 간판의 희비

### ISU 그랑프리 파이널 하뉴 세계新 3연승...아사다 최하위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사상 처음으로 ‘총점 300점대’를 돌파한 일본 남자 피겨의 ‘최강자’ 하뉴 유즈루(21)가 또 한 번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파이널 3회 연속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하뉴는 13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5-2016 ISU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120.92점에 예술점수(PCS) 98.56점을 합쳐 219.48점으로 1위에 올랐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110.95점을 따낸 하뉴는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쳐 총점 330.43점으로 하비에르 페르난데스(스페인·292.95점)를 무려 37.48점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날 하뉴가 따낸 총점(330.43점)은 지난날 그랑프리 6차 대회인 ‘NHK 트로피’에서 달성한 남자 싱글 역대 최고점(322.40점)을 8.03점이 끌어올린 새로운 기록이다. NHK 트로피에서 남자 싱글 사상 처음으로 ‘총점 300점대’를 돌파한 하뉴는 이번에는 경이로운 ‘330점대 진입’의 역사를 썼다. 하뉴의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점수 역시 모두 역대 최고점이다. 한 시즌 동안 치러진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성적이 좋은 상위 6명만 나서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4회(2012년·2013년·2014년·

2015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하뉴는 ‘러시아의 전설’ 예브게니 플루센코(1999년·2000년·2002년·2004년)와 역대 최다우승 동률을 기록하는 기쁨도 맛봤다.

하뉴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무려 3차례나 퀴드러플 점프(공중 4회전)를 시도해 모두 성공하며 관중의 탄성을 자아냈다.

반면 일본 여자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25)는 트리플 악셀(공중3회전반)에 발목이 잡혀 여자 싱글에서 최하위의 수모를 당했다. 아사다는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56.75점과 예술점수(PCS) 68.44점을 합쳐 125.19점을 받아 6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꼴찌로 밀렸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69.13점을 받은 아사다는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친 총점에서도 194.32점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16살의 ‘러시아 신예’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는 쇼트프로그램(74.58점)에 이어 프리스케이팅(147.96점)까지 1위에 올라 총점 222.54점으로 그랑프리 파이널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메드베데바의 총점은 자신의 역대 최고점(206.76점)을 무려 15.78점이 끌어올린 것으로 역대 여자 싱글에서도 김연아(한국·228.56점)와 아멜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224.59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점수다.

/연합뉴스